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2월호
2019년



SNOW COVERED BACA CANYON
SANDIA MOUNTAIN

한인회장인사

교민 여러분

민명희
뉴멕시코 한인회장



지난 한해를 보내면서 참 좋은 뉴멕시코 여러분들과 한해를 함께 살았다는 것은 넘치는 행복이고 한 없는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수록 기쁨이 넘친다는 중요한 삶의 기쁨을 맛 보았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저를 해주신 분들께서 오래동안 저를 준비시켜주신덕분에 제가 오늘 한인회장으로서 여러분께 2019년도 희망찬 기해년 첫인사를 드릴수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새로운 한인회로 발전하기 위해 이사회분들의 도움을 얻어 제18대 한인회의 임원진과 저는 같은 목표와 소견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겠습니다. 새해에 시작되는 다음 세까지 중요한 사업기획을 아래와 같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많은 조언 및 사랑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2월호 주요내용

- 한인회장 인사 | 교민여러분 | 민명희 : 1
- 한국학교/KOWIN소식 | 한국학교/코윈 소식 : 3
-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 4-6
- 칼럼 | 새해 다짐 “변화됩니다” | 김기천 : 7
- 수필 | 샌터페이(Santa Fe) | 이정길 : 8
- 수필 | 기성세대의 듣기와 칭찬 | 이근재 : 9
- 영어상식 | Log/Log in과 Knot의 어원 | 이상목 : 10
- 공모전 에세이 수상 | 언어교육 자원봉사 | 박선숙 : 11
- 공모전 에세이 수상 | 함께하는 자원봉사 | 안은영 : 12
- 공모전 에세이 수상 | 누군가의 천사 되기 | 성연주 : 13
- 공모전입선 | 푸에트리코 해변에서 봉사 | 김나원 : 14
- 독후감 대회 입상 |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 한서희 : 15
- 수필 |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길 | 김준호 : 16
- 건강상식 | 치과이야기 | 윤자정 : 17
- 수필 | 큰교회 | 이명길 : 18
- 수필 | 파수꾼아, 세월을 아껴야할때 | 한승우 : 20
- 간증문 | “새벽의 은혜와 축복” | 박선희 : 21
- 기도문 | 주일 예배 기도문 | 이철수 : 22

한인회장인사

- 1)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뉴멕시코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알버커키 열기구 축제 (Albuquerque Balloon Festival)에 참여해서 한국문화와 전통을 알림으로서 한국인의 위격을 높이고 파트너 코리아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세계각국에 주민중에 하나인 한국인들)를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며 우리의 정체성 및 차세대를 위한 원조석이 되는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 2) 뉴멕시코 정치인 대표를 통해 지역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파트너 코리아가 통역지원 서비스를 받을수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선거에 참여할수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 3) 한국학교 아동교육 지침은: 1) 창의적인 교육; 2) 경제

개념을 갖는 교육; 3) 적성에 맞는 진도 교육을 설정해보겠습니다. 전학생 모두를 개성적인 일등으로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힘은 창의성의 원석이며 토론에 두려움 없고 열정이 넘치는 아동들로서 잘 성장할수있도록 학부모님들과 함께 힘쓰겠습니다.

한국 학교의 목표가 마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봉사의 부자, 후원의 부자인 아동들이 될수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새로운 방향과 도전을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현존해 있는 어버이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지극히 낮은자로서 더불어 한인들과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말 없이 섬길때 우리는 하나 되어 어려운 일도 즐겁고 긍정적으로 끈기 있게 해낼수 있다고 믿습니다. 칭찬하고 화목하게 함께 가십시오. ■

초대합니다

뉴 멕시코주 한인회

모시는 말씀

평소 저희 뉴멕시코한인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오며 아뢰을 말씀은

뉴멕시코주 한인회 제 17 대 문상귀 회장과 제 18 대 민명희 회장의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 일시: 2019 년 1 월 19 일(토요일) 17:00
- 장소: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 문의전화: 505-934-1233



뉴 멕시코주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이임회장 (제 17 대) 문 상 귀
취임회장 (제 18 대) 민 명 희
회관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배상

코원소식을 전합니다

박광종
KOWIN 뉴멕시코 지회장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코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Ronald McDonald에서 암치료를 위해 타주에서 온 가족들을 위해 저녁봉사와 어버이회 점심식사봉사, 한국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추석송편만들기, 김치축제에서 김치만들어보기, 매듭만들기,한복입어보기와 수목화부채그리기, 마지막 행사로 집이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김치바자회까지 묵묵히 사회에서 소외되어있는 이들을 도와주고 한국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하고 차세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회원한분한분께 감사말씀 전합니다. 코원행사때 회원이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이라 손수 도와주신 분들께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전합니다.

코원은 12월에 한 김치바자회의 수익금으로 80명의 홈리스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The Barrett Foundation을 도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찬물에 배추를 씻어가며 매운 양파와 파에 눈물을 흘려가며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즐거움에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코원은 내년

에도 암치료를 위해 타주에서 온 환자가족들을 위한 저녁식사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코원의 취지를 같이 하실 분들의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박영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 기해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늘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2018년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이번에도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받아 여름 캠프를 시행하였고 미주한국학교에서 실시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설팅 사업에서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가 우수학교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아동반에서는 미주한국학교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재학생인 박지우 양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재단법인 김구재단과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독후감 대회에서 한서희 양이 백범통일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수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도하고 독려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노력의 결실이며 학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과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한인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더욱 많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맘껏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신학기가 1월 26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학생들이 한국학교를 통해 본인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멕시코 한인회 제18대 회장 선거



뉴멕시코 한인회 제18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민명희 씨가 당선됐다.

투표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었다. 총 투표수는 우편 투표수 17명 포함 164명이 투표했다. 89명이 투표에 참여한 17대 한인회를 이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기권 3명, 기호 1번 윤태자 후보가 67표, 기호 2번 민명희 후보가 94표를 득표해 제18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산타페와 클로비스 등에서 우편투표를 하지 않고 직접 투표에 참여해 선거의 열기를 더했다. 김경숙 선거 관리 위원장과 손말레, 장재준, 조문성, 최성원 선거 관리위원, 박용수, 신동완, 이성희, 이명길 참관인이 준비한 테이블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때까지의 안내를 도왔다.

오후 4시가 되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한인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가 시작되었다. 김경숙 선거관리 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선언하고 민명희 후보가 94표로 당선 확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한인회를 이끌게 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경숙 선관위장은 “두 후보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반대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길 바란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관위에 박수와 격려를 부탁한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불찰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해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한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3회 연속 도전해 꿈을 이룬 민명희 회장 당선자는 “약속드린 공약대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일하겠다. 젊은 인재들과 함께 조직하고 연구하고 힘을 합해 한인회가 좀 더 발전하고 새 시대에 맞는 한인회가 되기를 약속드린다. 보살피는 한인회, 품격있는 한인회, 청소년들도 한국 학교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미래를 여는 함께하는 한인회, 지갑이 두둑한 한인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선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지지자들과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과 참관인, 온종일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명희 회장 당선자는 17대 임원진들과 협의를 거쳐 취임일을 정하는 등 참모진들과 함께 새 회계연도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리조나 타임즈 2018년 12월 5일자 기사 전재〉

신광순 권사 모친 고 김정현 권사 장례예배

신광순 권사의 모친 고 김정현 권사의 장례 예배가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인 김기천 목사의 집례로 있었다. 이명길 목사는 “고인께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확신한다. 유족들에게 천국의 확신이 깊이 자리 잡아 믿음에 충성하는 자손들이 되기를 바란다. 엄숙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사무엘 초이 장로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성경 봉독이 있었다.



마이크 조 장로의 지휘로 성가대가 ‘저 건너편 강 언덕에’를 불렀다. 설교를 하신 김기천 목사는 이어령 박사가 소개한 증자(曾子)의 말 ‘까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면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를 인용해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것이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종교뿐이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다. 죽음의 재판 법정 앞에서도 거짓이나 변명이 없었다. 당신 자신의 삶을 통해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로서가 아닌 고통의 죽음을 통해 진리의 길을 묵묵하게 가셨다. 주님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고인의 생전의 모습 30여장의 사진을 모아 편집한 회고영상을 보며 고인을 추억했고 이어 장남인 신광순 권사가 고인을 소개했다. 신 권사는 어머니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일본강점기와 6.25 등 한반도의 험난한 역사를 다 겪으며 한 세기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셨지만, 어린아이 같은 편만한 얼굴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셔서 위로가 된다며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했다. 예배 후 김부패에서 오찬을 나누고 헤어졌다.

신광순 권사님 (뉴멕시코 8대 전 한인회장)의 모친 고 김정현권사님께서는 11월30일 향년 98세로 LA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유족으로는 장남 신광순 권사(부인: 신옥주:A-1 한국식품)와 장녀 신경순(남편: Robert Kirkham교수), 손자 Joshua, 손녀 Julie가 있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앨버커키 일자리수 최고 수준에 올라

앨버커키의 일자리가 1999년 이후 최고로 많은 기록을 보였다고 12월3일자 알버커키저널에서 보도했다. 지난 10월 통계에 의하면 앨버커키 도시권(Metropolitan)의 일자리는 40만3천 500개가 되는데 통계기록을 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운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 일년동안에 일자리 증가율을 인근의 타 도시와 비교를 해 보면 아리조나의 투산이 1.9%, 텍사스의 엘파소가 2.3%,오클라호마시티가2.2% 인데 앨버커키는 2.8%를 기록했다.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5.4%로서 이례적인 큰 차이를 보였다. 10월에 늘어난 11,000개의 일자리를 분야별로 보면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가 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호텔, 레스토랑같은 서비스업, 레저업계가 5.4%로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 보건분야는 변동이 작아서 증가율은 미약했다. 앨버커키 도시권의 실업률은 지난 10월 4.4%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년전의 5.6%보다 상당히 좋아진 수치이다. 앨버커키뿐만 아니라 뉴멕시코 주의 전반적인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겪은 대공황에서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

뉴멕시코 주택시장

뉴멕시코의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시장 동향과는 반대로 전례 없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뉴멕시코 부동산 중개업자협회의 Connie Hettinga회장이 말한바에 의하면 2018년 11월 한달사이에 거래된 주택매매는 2,613건이었는데 이는 지난 5년간의 11월 통계와 비교하면 30%를 초과하는 기록이라고 한다. 코니 회장은 2018년 전반에 걸친 주택시장의 통계를 보면 더욱 경기의 상승을 잘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2018년의 11월까지 주택 거래건수는 29,595건으로 2017년 동기간에 비교할때 7,000건이 더 높은 수치가 된다. 11월에 거래된 뉴멕시코 주택의 가격은 중앙값(Median)이 \$208,000이었다. 11월 전까지 6개월동안은 중앙값이 \$200,000이었으나 11월의 통계는 4% 오른 값이다. 중앙값의 의미는 거래된 주택수의 절반은 중앙값보다 낮고 다른 절반은 중앙값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것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2018년 주택시장은 예년보다 3% 정도 하락할것으로 내다 보고 있는데 반해서 뉴멕시코의 주택 경기가 호황인것은 아마도 최근의 석유 가스 산업의 붐과 실업률의 호전으로 일자리가 많아져서 뉴멕시코의 경제가 호전된 것이 그 이유인것 같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

기사 출처:Albuquerque Journal 2018.12.

미셸 루안 그리삼 주지사 취임

뉴멕시코주 주지사가 된 미셸 루안 그리삼(Michelle Lujan Grisham)은 1월1일 취임연설에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그의 성과는 아주 클것 이라는 표현으로, “We will go big-really big” 라고 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타페 커뮤니티 컨벤션에 그리삼 주지사의 취임연설을 듣기위해 모인 1200여명의 회중앞에서 그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최저임금 개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뉴멕시코 주민의 교육향상에 관련된 과제들을 제시했다. ■



한국 기업체 뉴멕시코에 공장 설립

한국 고무 기업인 정우 러버 & 플라스틱(Jungwoo Rubber & Plastic)의 미국 자회사 라이노 헬스(Rhino Health)가 뉴멕시코에 장갑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나바호 내이션 인디언 땅에 한국 기업체가 합작투자를 함으로서 3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뉴멕시코 갤럽근처에 있는 Church Rock에 니트릴장갑 생산공장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앨버커키 저널 12월 6일자에 나왔다.



러버 & 플라스틱사에서 발표한 뉴스에 따르면 라이노 헬스는 니트릴 장갑(nitrile glove)을 제조, 공급하기 위해 12만4000 평방 피트에 49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라이노 헬스는 미국 정부 기관, 의료 시설, 식품 산업·소매업자를 상대로 고급 니트릴 합성 장갑을 판매할 계획이다. 라이노 헬스의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갤럽 지역에서 3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가 될것이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산타페 한인교회
소식

산타페 한인교회는 창립기념 감사예배로 11월 18일 1세대 복음성가 가수이신 이은수목사님을 모시고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은수 목사님은 '너는 내아들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등' 많은 찬양을 작곡하고 부르신 찬양사역자이십니다.

또 연말을 맞아 교회 다니는 로스알라모스 연구원들 가정 중심으로 성탄축하모임을 이윤정 장로님께서 모였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각자 선물을 준비해와서 함께 나누며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성탄절 감사예배때는 두명의 어린이에게 유아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 가득하길 소원하며 메리크리스마스 & 해피뉴이어 ! ■



광야의 소리 이번 호는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에 당선된 4편의 에세이를 모두 수록해서 소개합니다

자원봉사 콘텐츠공모
심사 결과 보고

자원봉사 콘텐츠공모전에 최우수상 박선숙, 공동 장려상, 성연주, 안은영, 입선, 김나원입니다. 심사기준은 (1) 자원봉사경험 (2) 에세이 내용 (3) 에세이형식과 질로 임원들이 읽고 심사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은 일반부에 박선숙. 현재 대학에서 문해와 언어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자신의 전공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학생들과 불후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하는 차세대교육에 솔선수범하는 분입니다. 아시안지역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시아패밀리센타를 통해 통역과 번역을 하여 한국주민들에게 한국어로 선거와 관련한 번역, 다양한 사회정보를 정하는 문서번역과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지역주민을 위해 통역으로 자원봉사하고 계십니다. 코원이 차세대교육과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가는 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많은 면으로 일치하여서 박선숙씨께 최우수상을 드렸습니다. 안은영씨는 한국으로 부터의 여성전화상담 자원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다른 자원봉사를 하다 노숙자를 돕고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를 통해 8년동안 250명-350명되는 식사를 준비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역시 소외되어가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셔서 장려상을 드렸습니다.

성연주씨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가족 폭력의 피해를 입은 아시안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면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한 할머니의 도와드린 구체적인 예화를 들으며 자원봉사를 통해 아시안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열등감과 소외감,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남을 도와줄 수 있어 많은 기쁨과 배움을 얻었다했습니다.

김나원씨는 대학부 입선에 당선되었습니다. 포토에세이로 푸에트리코 사그라도 코라존 대학으로 교환학생당시 허리케인 마리아이후 축대밭이 된 해변을 청소한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을 전한 에세이였다. 아름다운 해변이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한 곳을 청소하면서 다음세대에게 아름다운 해변을 물려주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자원봉사를 마치면서 다시 맑아진 해변처럼 사람들의 맘도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맘또한 전해줘서 입선을 결정했습니다.

김나원은 현재 UNM학생이구요, 성연주씨는 파산및 채권관련소송에서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이고요. 박선숙씨는 현재 New Mexico Highlands University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은영씨는 여러모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있는 이들을 도우고 계십니다. ■

(글: KOWIN 박광종 지회장)

새해 다짐 “변화됩니다”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해는 1991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에서 버스나 전철을 타면 쉽게 볼 수 있는 구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탓이오!” 어느 단체에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네 글자를 선명하게 인쇄해서 누구나 쉽게 보도록 여기 저기 붙여놓았었습니다. 당시 이 구호를 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곤 했었지요.

사실 이 구호는 천주교 기도문 가운데서 나왔지요. “고백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제 탓이오” 또 가슴을 치면서 “제 탓이오” 세 번째 가슴을 치며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당시 사회 정치적으로 남의 탓만 하면서 서로 불신하는 사회를 변화시켜보자는 의도로 시작된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93년도에 하바드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이 있었지요. 한국에 연구차 몇 달을 다녀와서 한 말이 여전히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평과 비판을 예리하게 잘 하는데 대안이 없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비평과 비판은 세상을 시끄럽게만 합니다. 싸움과 갈등만 부추기지요.

예수님은 진정한 “내 탓이오”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지요. 온 세상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 탓이오”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라고 고백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내 탓이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지요. 모든 문제를 “내 탓” 심지어는 “조상 탓”이라며 남의 탓만

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용기 있게 “내 탓이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장로님들 세 분이 매우 연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한 해만 더 수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제가 본 교회에 온 지 벌써 1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장로님들을 이어받을 지도자들을 세우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담임 목사인 “내 탓”입니다. 2004년 봄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로 부임하기 위해 교인 대표들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지요. “목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목사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담임자인 제가 바뀌지 않으니 교회도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담임자인 저의 큰 탓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선 목사인 저부터 “변화되자”라고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변화하자”가 아니라 “변화되자”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도록 나를 하나님 뜻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자신을 내려놓거나 자신을 죽여야 하지요. 오죽하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라고 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저의 큰 탓이옵니다. ■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샌터페이(Santa Fe)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스페인 사람들은 16세기에 멕시코와 페루를 정복하여 잉카와 안데스 문명을 파괴했다. 이어서 북상하여 점령한 땅에 뉴멕시코라는 이름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1605년 경 해발 2,000미터의 높은 지대에 도시를 건설하고 샌터페이라 불렀다. 강을 끼고 있으며 공기가 맑고 시원한 곳으로, 푸에블로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 샌터페이는 줄곧 뉴멕시코 주의 중심 도시였으며, 미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주도이다. 미국 자체보다 더 오래된 도시로, 지금도 활기차고 자극적이고 재생적이다.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의 샌터페이는 ‘특이한 도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그에 걸맞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별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샌터페이에 다다르면, 낮은 건물들이 고지 사막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어도비 건축 양식 때문에 나타나는 그 특징의 연원은 400년을 거슬러올라간다. 최초로 정착한 스페인 사람들이 땅에서 나는 재료 (찰흙 + 모래 + 짚)로 집을 지으면서, 푸에블로와 스페인 건축 양식을 혼합하여 도안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물을 넣어 잘 이긴 다음, 가로 세로 두께가 각각 약 25 x 45 x 13센티미터인 판자 틀에 넣고, 모양이 갖추어지면 틀을 뜯어내고 햇볕에 말린다. 굳어진 벽돌 어도비를 차곡차곡 쌓아 벽을 만들고, 들보를 얹은 뒤 그 위에 판자를 깎는다. 판자 위에 20센티미터 두께의 흙을 덮으면 평평한 지붕이 된다. 외벽은 찰흙 회반죽으로 단장하는데, 사용하는 흙의 색깔에 따라 붉은 색, 갈색 혹은 흰색의 토담집이 된다. 그 벽돌로 지은 집도 어도비라 불리고, 400년 전에 지은 어도비 성당이 지금도 건재함을 과시한다.

샌터페이는 인종의 도가니다. 원주민이었던 인디언, 정복자였던 스페인 사람, 정복자들에 묻어온 멕시코 사람, 뒤늦게 찾아온 영국계 미국인, 그리고 북유럽계 사람의 후예까지 다수의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이다. 오래 전부터 혼혈되어 겉 모습만으로 계통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딴 도로가 많고, 스페인어가 공용화되어 신문을 읽을 때나 뉴스를 들을 때 말 뜻을 제대로 몰라 곤란한 경우도 흔하다. 백화점이나 식품점에서 줄 서 기다리다 들어보면 사람들의 대화 세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뒤바뀐다.

예술의 도시 샌터페이는 다민족 문화 예술의 융합체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오랫동안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살아온 결과일 터이지만, 이 도시는 모든 분야 창조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번창하는 예술 공동체, 연중 접근하기 쉬운 뛰어난 야외 풍경,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느긋한 따위가 사람의 마음을 끈다. 인구는 7만에 못 미치는 조그마한 도시이지만, 예술품 경매 실적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다. 200개가 넘는 화랑에, 수 세기 전의 보물에서 현대 작품에 이르는 예술적 표현 수단과 유형을 보여주는 주요 박물관이 여럿 있어서 예술가들의 메카라고 불린다. 주민 여섯 중 하나는 예술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샌터페이 광장 한 쪽에는 인디언들의 공예품 시장이 날마다 열린다. 광장에서는 여름이면 빠지않고 두 가지 시장이 이틀씩 열린다. 7월 하순에 열리는 스페인 시장은 6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300명에 이르는 공인된 명장들의 작품이 가설 매점에 전시된다. 뉴멕시코 고유의 식민지풍 예술품이 있는가하면 현대의 재료와 방법으로 문화적 의의를 담은 라틴 아메리카계 명인들의 작품도 있다. 8월 하순에는 90년 이상 계속되어온 인디언 시장이 열린다. 오랜 전통을 지닌 푸에블로 도자기를 비롯하여 장인들이 만든 각종 공예품들이 노점을 가득 메운다.

‘박물관 언덕’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색다른 국제 민속 예술 시장이 7월에 사흘씩 열린다. 두 여인이 세계 각처를 돌며 전통과 문화에 기초한 갖가지 수제 토속 예술품을 구입한 다음, 그것들을 조합하여 만든 새로운 작품을 자기 집에서 팔기 시작한 예술 시장이다. 이듬해인 2005년부터는 여러 나라의 명장들에게 자기들의 작품을 가지고 와 직접 팔게 한다. 민속 예술 시장으로는 세계를 통틀어 가장 커서, 2016년에는 88개의 나라 750명의 명인들이 모여들었다. 이천 도자기에서도 여섯 사람이 파견되어 166개의 부스 중 하나에서 높은 수준의 작품을 선보였다. 주인이나 객이나, 예술적 작품은 재미에 빠지게 만들면서 쓸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리 상자 안에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시각 예술 이외에 공연 예술로도 명성을 떨치는 도시. 1956년에 창설된 회사 샌터페이 오페라는, 명작 소설이나 영화를 오페라로 만드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창설 이래 새 가극 14편을 주문했고, 44편의 가극을 미국에서 초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샌터페이는 내가 사는 앨버커키에서 한 시간 상거라 25번 도로에 들어 북쪽으로 달려도 되지만, 두 도시를 이어주는 기차를 타고 가면 낭만에 젖어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기성세대의 듣기(LISTEN)와 칭찬



이근재
예비역 공군 대령

딸이 있는 이곳 알버커키에 와서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우선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이 쾌적하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교회생활을 통해 남녀노소 구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조직 내에서 계층간의 자연스런 조화까지도 읽을 수 있었다. 특히나 시니어분들께서 은퇴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집사님이니 하시면서 사랑방 어르신 대접을 받으실만도 한데 이곳에서 술선수범하시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이 든다.

최근들어 고령화, 초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 추세 속에서 남녀노소 계층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 특히 기성세대, 시니어분들의 지난날 경험과 연륜 그리고 자존심으로부터 잉태되어 나온 고정관념의 것들은 동서고금을 통해 결코 틀릴 수 없는 그들만에 있어서 만고의 진리이다. 일찍이 공자님은 이러한 심리를 간파하여 “사십에 불혹”이라, 나이가 사십에 들어서면 자신의 가치관에 흔들림이 없다는 말인데,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관이 뚜렷하여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고집과 아집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외골수와 웅고집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현실적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 심리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세월이 흐르면서 찾아드는 지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과 이로부터 오는 열등감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심리적 방어기제의 발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의 주장만을 역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경청할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고 상호 소통이 이루어진다.

LISTEN

- L : Listen (귀담아 들어주고)
- I : Ing (중간에 끊지 않고)
- S : Smile (웃으며 말하고)
- T : Touch (마음으로 공감하고)
- E : Eye Contact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 N : Nod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고)

경청하면 왜 소통이 이루어질까?

이러한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면 쉽게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적당한 리액션(맞장구)을 보일 때 내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상대방이 딴짓하며 듣는동안 할때 내 기분이 좋은가? 이는 말할것도 없이 상대방이 전자의 반응을 보일때 말할 맛이 나고 기분도 좋고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까지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내가 그로부터 인정 (Recognition)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존재 가치까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는 동물이다. 그러기에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을 나 역시 인정하게 되고, 상호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소통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최고의 방법은 칭찬이다. 칭찬의 대상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말 못하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다. 그 칭찬의 방법에는 언어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태도나 몸동작 (Gesture)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최종 결과만 보고 칭찬하지 말고, 그 과정(Process) 중에도 끊임없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소통하게 하는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너그러운 칭찬이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또한 입에 바른 칭찬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진정성있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야말로 생명력이 있고 긍정적인 소통을 낳는다.

결론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조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 지혜는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 상대방을 인정하며 마음을 다해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 진정성있는 칭찬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

Log/Log in/Logbook과 Knot의 어원

저자소개: 이상목 씨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DeVry University의 교수로 재직했다. 30여년간의 전기공학 교수생활에서 은퇴한 뒤 일생동안 그리던 매혹의 땅 뉴멕시코로 내려 와서 리오 란초에 정착하였다. 그는 한국 아마추어 무선 연맹에서 발간 하는 회지 KARL에 “Ham들을 위한 영어산책”이란 제목의 시리즈를 2005년 부터 2013년까지 61회에 걸쳐 기고하여 한국 무선사의 영어 실력을 키워주면서 무선통신 기술까지도 쉽게 설명해주는 글을 써서 한국 아마추어 무선사들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여기에 실린 글은 그 기고문 중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가(K7MOK)

필자는 취미활동으로 집에서 아마추어 무선국(호출부호 K7MOK)을 운용하고 있는데, 교신이 끝나면, 교신시작과 종료시간, 사용주파수, 신호강도, 위치, 이름등 교신내용을 교신일지(Logbook 또는 Log)에 기록해 둡니다. 미국의 경우, 한때는 교신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 통신위원회)의 요구사항이었고, 면허갱신 (license renewal) 때 logbook을 제출(提出)하여야 했었는데, 지금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아마추어들이, 오래된 ham 이던, 이제 막 시작한 new ham이던(ham은 아마추어무선사를 지칭합니다), 교신 일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log”는 기록일지인 “logbook”의 뜻도 되고, 기록하는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명사 동사로 다 쓰임). 뜻이 약간 변질되긴 하였지만, in이나 on과 함께 사용하여, 우리가 컴퓨터로 은행이나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면, log in, log on, 또는 sign in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user name이나 password를 입력하면 접속이 됩니다. log in이나 log on 은 띄어쓰면 동사이지만, 붙여서 login 또는 logon 하면 명사로 쓰입니다. signin은 사용치 않습니다. 접속하고 있던 site를 나갈때는 log out, log off, sign off, sign out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Log in대신에 Microsoft사는 Sign in을 애용하는것 같습니다.

발전소나 군대등에서 근무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근무일지도 log, 비행사들이 날씨등을 포함한 비행중 일어나는 비행기록도 log 입니다. 그러나 “log”는 알다시피 원래 쓰러진 나무의 몸통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통나무의 뜻입니다. 링컨(Lincoln) 대통령 하면, 떠올리는 것이 통나무 집(log cabin)입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미국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수출하였을 당시, 통나무와 같은 차라고 혹평을 하였는데, 지금은 물론 아무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Tennessee로 여행중, 미국 16대 대통령 이었던 Lincoln이 태어난 통나무집(log cabin)을 그의 출생지인 Kentucky주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인 Sinking Spring Farm 에 들러서 보았는데, 오래 보존하기 위해 에어컨 시설이 되어있는, Memorial Building 안에 조그마한 통나무집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길었다는 샘물도 옆에 있습니다.

교신일지(또는 항해일지)를 Logbook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박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통나무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에 선박의 rope에 매달린 log (chip log 라고 불리는, 사실은 부채꼴 모양을 한 큰 나무 조각)를 띄워 놓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고 물에 떠있습니다. 띄워놓은 움직이지 않는 나무조각(log)이 기준(reference)점이 되는데, 배가 움직이면 배에 감겨있는 rope가 풀립니다. rope는 약 14.32 미터마다 매듭(knot)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리는 정해진 시간 (28초: 30 초짜리 모래시계를 썼음)에 몇개의 매듭(knot)이 풀려 나갔는가를 세면(counting) 되니까, 매듭수 곱하기 14.32 m로 거리를 계산하고, 이것을 시간으로 나누어 속도를 재었습니다. 그래서 log를 띄어놓고 매듭을 count 한데서 항해일지를 “Logbook”이라고 부르게된 것입니다. 또한 속도를 재는데, 매듭(knot)을 세었기에 배의 속도는 knot(노트, 미국식 발음은 나트)가 쓰이게된 것입니다. 즉, 1 노트(knot)의 속도는 28초에 14.32m (매듭 하나의 거리를) 가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1 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14.32m \div 28 \times 3600 \approx 1,841 m = 1.841 km$ 인데, 공식(公式)으로 정해진 1 노트의 속도는, 1 knot = 1 nautical mile/hour = 1 해리(海里) = 1.852 km/h 로서 거의 비슷합니다.

매듭은 서로 잇는 것을 나타내므로, “tie the knot”(매듭을 맺다)는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요즈음은 물론,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사용하여 속도(速度)를 잴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간 통용되는 1해리는 지구의 위도(latitude)상의 1분(one minute) 거리를 1시간에 가는것을 1 노트(knot)로 정하였습니다. 지구의 위도는 북위 90도, 남위 90도, 180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간과 같이 위도(latitude)도 1도는 60분, 1분은 60초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sphere)이 아니기 때문에 위도 45도에서의 1분 거리인 1.852 km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미국은 1954년에 채택). 극(極)지방은 약간 평평하기 때문에 1분거리는 1.861 km이지만, 적도에서의 1분거리는 1.843 km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Rio Rancho집의 위치는 북위 35.228333도, 즉 35도 13분 41초 (35°13'41"N)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log in, log off, log out이 옛날에 선박의 속도를 재기위해 사용했던 통나무(chip log)에서 나온것임을 알아 보았습니다. “You are being logged on now.” Happy New Year. ■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문해와 언어교육 자원봉사

Literacy and Language Education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박선숙

New Mexico Highland University
교수

코원 관계자님들께,

저는 현재 대학에서 문해 (Literacy)와 언어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학원생들로 현직 교사들만이 저의 대학원 프로그램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저의 주요 교육 과목은 현직 교사들의 교사 연수를 통한 문해, 언어, 교육 과정을 재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유아교육 교사부터 초중고등 학교 교사까지 다양한 교사들을 매 학기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배경을 논함은 저의 이러한 교육경험이 제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원봉사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의 영어발달과 읽기와 쓰기 발달입니다. 뉴멕시코주의 많은 학생들이 저임금 가정의 자녀이며 부모님들은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들을 뒷받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은 학생들의 교육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장애로 인해 많은 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학교에서 낙후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의 학생들인 현직 교사들의 이러한 경험과 목적담은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하소연으로 발전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접할 때마다 저는 그저 하소연으로만 듣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 결과 저의 지식과 교육 배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Albuquerque와 Rio Rancho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일대일 과외 수업을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그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도왔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소수민족 출신들 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영어 문제로 인해 학교 교육도 뒤쳐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동시에 교과과목에도 집중하는 교육방식을 적용하며 방과 후 과외수업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으로는 큰 효과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의 교육과 성공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 부여가 됨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의 발달로 자신감이 증가하는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자신감과 동기부여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방과 후 과외 학습 봉사와 멘토링(mentoring:상담)은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증가시키는 큰 결과를 낳았다고 자부합니다.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문해 교육을 위한 저의 또 다른 자원봉사는 초중등학교에서 퍼포먼스와 문해에 관련된 이벤트를 주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해를 익히는 데는 전통적인 교수법도 중요하지만 혁신적이고 창의적 교수법을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연한 기회로 저는 웨스트 아프리카 음악을 배우게 되었고 음악을 배우면서 문화의 중요성과 문해의 연결성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퍼포먼스와 문화와 문해는 깊은 연결고리로 끼워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악기 하나를 만들기 위한 나무를 베는 데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특별한 날을 잡아 의식을 치른후 나무를 벨 정도로 music, movement, and literacy는 그 문화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와 정서는 서구적 가치 정서와 다름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문해 발달, 즉 읽기, 쓰기, 듣기와 말하기를 가르치는데, 퍼포먼스를 겸한 교수법이 훨씬 효과적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수법을 아동문학과 연결시켜 저소득층 대상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사를 해왔습니다. Albuquerque 교육청 (APS) 산하에 있는 여러 곳의 초등학교에서 여름학교까지 포함한 많은 봉사를 해왔으며 학생들과 책을 같이 읽고 음악을 듣고 토론하며 단어를 익히고 대화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표현력을 높이고 사고력을 높이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어 왔습니다. Albuquerque 교육청 산하가 아닌곳으로는 Jemez에 위치한 학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Native American(원주민) 학생이 중심인 중학교에서 퍼포먼스(공연)를 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Native American community의 허가를 받아야 만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제가 받은 잇을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와 비슷하게 원주민 아메리칸 문화도 음악과 무용과 문해는 떨어질 수 없는 문화적 연결고리입니다. 한 교사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한 남자 학생이 저희의 퍼포먼스 어셈블리에서 제일 활발하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 말씀이 그 학생이 청중 앞에 나서는 걸 본 적이 없었으며 그렇게 발랄하게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 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것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끈을 어떻게 보여주고 연결 시켜 주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미래가 달려있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 뉴멕시코주 아시안 퍼시픽 패밀리센터에서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14쪽 으로 계속

함께하는 자원봉사, 하나되는 우리 이웃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나의 자원봉사의 첫시작은 30여 년 전으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부터였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사회봉사나 자원봉사 활동 등이 그리 일반화 되지도 홍보 되지도 않았었다. 사회봉사 활동이라면 대부분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농촌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대부분 이었었다.

우연한 기회에 부산시 여성회관에서 모집하는 여성전화상담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보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평소 딱히 사회봉사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열정이나 신념 같은 건 없었지만, 기회가 되면 어떤 종류의 봉사 활동이든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다.

그렇게 자원하게 된 1차 50명이 제 1기가 되어 일정시간 동안 상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실무 봉사에 들어갔다.

각자 봉사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정하여 스케줄을 짠 후 정한시간에 나와서 전화기를 마주하고 익명의 내담자의 문제와 고민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일로 시작했다. 그 봉사 활동을 5년 넘게 해 오면서 깨달은 한가지는 세상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걸으면 알수 없는, 공개할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와 고민들이 개인의 삶과 주변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누구도 그 환경에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가족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불평등, 외도로 인한 가정의 해체, 부도로 인한 경제적 파탄, 부도로 인한 친족간의 갈등, 극도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성폭력, 자살기도, 가출 등등 처음엔 누구를 도울수 있다는 좋은 마음과 가벼운 마음 가짐으로 시작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벽차고 힘든 문제들을 편견없는 마음으로 들어 준다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냉정한 이성으로 그들의 당면 문제를 조금도 대신 해 줄수 없음을 인정하고 현재 그들이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선의 것들이 무엇인지 상담으로 함께 찾아 내는 것이 나의 일 이었다.

우리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프로전문가 자원봉사자들--즉 가정전문 변호사, 심리 치료사, 정신과 의사, 종교인, 산부인과 의사, 교육 전문가, 컴퓨터 관계자 등등 에게 연결시켜 전문적인 안내와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난 그 일을 5년 넘게하다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누군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했던가 난 미국의 어느 한적한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도 뭔가 할 일을 찾고 있었다.

결국 내 빈약한 영어실력으로 인해, 살고 있는 동네의 초등학교 2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이 아닌 산수 시간에 담임선생님 보조로 들어가 행복한 산수 도움이 동양 선생님이 되기도 했었다. 시간이 나는대로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을 위해 교회 소식지라든가, 도서관 대여 도서를 배달해 주기도 하고 성탄절엔 성탄절 노래를 불러 드리기도 했다.

이곳 알버커키로 이사온 후 혹시 한국처럼 고아원이나 보육원

안은영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집사



같은 시설이 없는지 궁금해서 찾았으나 그런시설은 없었다.

어느날 알게 된 미국부부로 부터 노숙자들을 돕고 식사를 제공하는 N이란 단체를 소개받아 한국분 이신 Mrs. Lee와 함께 봉사 다니기 시작했다.

거리에서만 보아왔던 노숙인들을 가깝게 보게되고 자주 만나게 되니 반갑게 인사도 나누게 되었다. 평균 250—350명되는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라서 식재료를 세척하고 다듬는 일, 조리를 돕는 일, 음료를 준비 하는일,식판에 담아 건네 주는 일등등 많은 일들이 도움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월급받는 소수의 직원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의 식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운영이 힘들게 현실이었다. 올해로 8년째가 되어간다. 세월이 빠른 탓에 그동안 여러명의 조리사도 거쳐갔고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봉사자도 만나고 헤어졌다. 3년 차쯤 되었을까 내겐 괜한 슬럼프에 빠지며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일반적인 문제는 마약중독, 술중독, 범죄중독, 게으름으로 인한 삶의 포기였다. 오랜 중병과도 같은 - 전혀 회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니 빠져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나의 이 작은 행동은 그들과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한동안 그런 갈등으로 그리 행복하지 않는 봉사의 시간을 보냈지만, 곧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평상심을 되찾아 어떤 절망도 흥분도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내가 할수 있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옛 숙담인가 “나랏님도 백성의 가난은 구제할 수 없다” 했던가. 인간의 의지 박약을 탓하기 전에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과 가지고 있던 나만의 가치관과 잣대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과 만약 나도 열악한, 구제 불능의 환경 가운데 놓이게 돼 있었다면 과연 이런 판단을 과감히 할 수있을 것인가 라고 내게 질문해 보았다.

혹시 누군가가 불행히도 남들과 다른 태생적 불평등에서 인생을 시작했거나, 치명적 이었던 사건이나 환경이 아직도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또는 극단적인 과거의 트라우마의 한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거 아닌가.

나라와 정부는 그들의 맡은 일을 하고, 개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게 된다.

남을 조금 돕고 있다고 남다른 자부심이나 자신을 특별 대우 할

22쪽 으로 계속

누군가의 천사 되기



성연주

앨버커키연합감리교회
변호사

“You are my angel, Yun. God answered my prayer.”

저는 L 할머니의 글썽이는 눈물을 보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 또한 눈물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스쿨을 다니던 저는 우연히 집 근처에 있던 Asian Family Support Services of Austin (AFSSA)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원 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AFSSA는 가정 폭력의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성들을 돕는 단체였는데, 저는 스무 시간 정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AFSSA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돕는 Direct Service Volunteer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클라이언트가 바로 L 할머니였습니다. 고령인 할머니는 백내장 증세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자가용도 없고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병원에 데려가고 데려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스틴 외곽의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는 할머니를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상보다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할머니와 통성명을 하고 뜻밖의 개인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L 할머니는 원래 인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어스틴에 정착한 할머니의 외동딸이 출산 후 인도에 있는 친정 엄마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육아를 부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와 딸 사이가 벌어졌고, 딸이 할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할머니는 돈 한 푼도 없이 딸의 집에서 쫓겨나서 어스틴에 있는 친구 집을 전전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L 할머니는 오직 신앙의 힘으로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를 눈물로 적신다고 했습니다.

그 날, 할머니를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제 머리 속에는 한국에 계신 엄마 얼굴과 할머니의 얼굴이 교차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데, 남편과 딸들이 없어진다면 엄마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저는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가 저 같은 딸의 모습으로 엄마 곁에 나타나서 엄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대신 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계신 엄마를 대하는 마음으로 L 할머니를 대하면, 엄마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느 누군가가, 미국에 있는 나를 대신하여, 엄마에게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L 할머니를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백화점에 할머니 옷을 함께 쇼핑하러 가거나, 인도 식료품점에 장을 보러 가거나, 혹은 커피숍에 가서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거나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하였고, 매일 저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할머니의 시련은

계속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렌트를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의 집이라도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친구와 친구의 가족들에게 눈치가 보이게 마련이었고, 그 때마다 친구와 관계가 나빠지거나 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Housing Authority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최장 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고혈압, 백내장, 심장 관련 이상 증세 등 각종 질병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저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머물던 친구 집에 저를 초대하여 인도 요리를 선보인 것입니다. 할머니는 미국화된 인도 요리가 아니라, 오리지널 인도 요리를 이틀에 걸쳐 직접 준비하였는데, 인도 음식으로 커리와 탄두리 치킨 정도밖에 모르던 저에게 다양한 야채와 고기, 생선으로 만든 새로운 요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인도 음식이 몹시 담백하고, 다양한 향신료로 맛과 향을 내며, 오히려 한국 음식이 간단하게 생각될 정도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2018년 초, 저는 새 일자리를 찾아 뉴멕시코 앨버커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L 할머니에게 저의 이주 소식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카드를 적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날,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무척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그저 무섭기만 한 마음 때문에 기도했는데, 제가 나타났고, 할머니는 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보내주신 천사라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L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카드를 건넸고 저 또한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앨버커키에서 저는 파산 및 채권 관련 소송에서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마음 한 켠으로는 늘 소송 한 건마다 채무자의 소중한 삶과, 어쩌면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AFSSA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제가 얻은 것은 할머니와의 인간 관계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파키스탄,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아시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열등감과 소외감,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미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17쪽으로 계속

푸에트리코 해변에서 봉사활동

김나원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UNM



아직 해가 들지 않은 이른 새벽 4시였다. 우리는 해변을 청소하기 위해 모였다. 내가 교환학생으로 온 사그라도 코라존 대학은 매년 이렇게 자원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 봉사활동을 개최하는데, 경영학부가 보통 주최를 맡는다. 보통 수업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하곤 하지만, 나는 정말 자원해서 참여하고 싶었다.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푸에트리코의 해변들은 썩대밭이 됐다. 여기 저기 버려진 쓰레기들과 날려온 쓰레기들은 아름다운 해변과 어울리지 않았다. 푸에트리코는 예산이 많이 주어지지 않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아름다운 해변을 보전하기 어렵다. 교환학생으로 방문한 첫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예쁜 해변을 본 나에게는 슬픈 일이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진 해변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 두시간 후 해변에 도착했다. 다같이 모여 해변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는 조를 나누어 쓰레기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쓰레기마다 종류를 기록해 다음년도의 쓰레기와 비교하기로 했다. 다리 밑에는 오래된 일회용품들이, 구석진곳에는 의미모를 바늘들이 발견되었다. 여기저기 버려진 건물들 밑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버린 쓰레기들은 악취를 풍겼다. 조원들은 나에게 더 이상 치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지나칠 수 없었다. 결국 조원들을 설득해 우리 구역이 아닌 곳들도 청소해버렸다. 오후까지 뜨거운 햇빛아래 일했지만, 함께한 현지 친구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힘든 것도 몰랐다. 우리는 안돼는 영어로 같이 대화하며, 서로에게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쳤다. 하나하나 이름을 물어가며, 서로에게 중요한 것들을 나누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너무 기쁜 일이었다. 다시 맑아진 해변처럼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깨끗해지기를 바라본다. ■



뉴멕시코 한국학교 한서희 양, 독후감 대회입상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에 재학중인 한서희 양(North Star Elementary School, 5th grade)이 미주한국학교연합회(이하 KOSAA)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및 재단법인 김구재단에서 시행한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독립 운동가, 백범 김 구'라는 제목으로 백범통일상을 받았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 대회에 총 52편의 응모작이 심사에 올랐으며 이두형(양정고 교사), 송민호(홍익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표정훈(출판평론가 및 작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내용 이해도와 의미 발견 및 글 구성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총 13편을 선정하였다. 전체 수상자 중에서 가장 어린 학생인 한서희양은 이번 대회 입상을 통해 세 달동안 '나라의 큰별, 김구'를 열심히 읽었는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한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책을 읽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11쪽 "언어교육 자원봉사"에서 계속

이는 코원의 멤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뉴멕시코주 아시안 퍼시픽 패밀리센터에서의 봉사는 주로 통역과 번역을 맡아왔습니다.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글/영어 이중언어로 된 자료들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주민분들께서 언어의 불편함 없이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왔으며, 케이스 메니저의 전화를 받고 한국어/영어 통역을 즉석에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의 언어의 불소통은 미국에서 얼마를 사셨느냐에 관련이 없이 겪는 불편함이었고, 또 그로 인해 불공평한 일을 당하시는 가슴 아픈 일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의 기회에 감사드려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년이 넘는 비밀비제한 봉사활동을 이글에 담으려니 선뜻 겸손해 짐을 느낍니다. 간략하게 담은 이 글이 관련자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내셔서 제 에세이를 읽고 평가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박 선숙 드림 ■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한국학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려고 해서 “나라의 큰 별, 백범 김구” 책을 읽게 되었어요. “나라의 큰 별, 백범 김구”는 제가 읽고 독후감을 쓴 첫 번째 한글책이고 제일 오랫동안 읽은 책이에요. 8월부터 10월까지, 세 달 동안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집에서 또 한국학교에서 읽었어요. 주말에도 읽고 또 주중에도 읽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제목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김구 선생님이 진짜로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나와서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다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구 선생님의 어렸을 때의 이름은 창암이에요. 창암은 어렸을 때 장난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돈주머니를 가져다가 떡집에 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왜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봐서 창암은 무서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창암이 가지고 간 것을 알았고 창암은 아버지에게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집에서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용서해주시고 아이들은 잘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면 안된다고 하세요. 창암이 잘못을 했지만 그 뒤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 창암의 친척이 결혼식 때 쓸 갓을 사가지고 올 때 길에서 양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갓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창암은 어머니한테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양반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창암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여 집안을 빛내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다짐했어요. 저는 창암이 만난 나쁜 양반을 보고 화가 났어요. 제가 양반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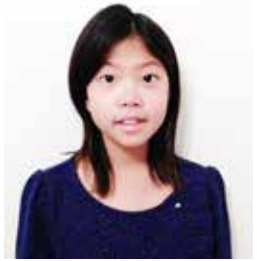
창암의 아버지는 선생님을 모셔서 창암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떠나고 창암은 공부하러 엄청나게 멀리 걸어가야 하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멀리 걸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삼십 분을 걸어간 뒤에 멈추고 다리가 아파서 가기 싫다고 불평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러 멀리까지 걸어가는 창암을 보면서 반성했어요.

창암은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하지만 시험장은 양반들 대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창암은 과거시험을 봐서 벼슬을 하겠다는 꿈을 접었어요. 새로운 종교인 동학이 퍼졌어요. 창암은 동학교도가 되어서 이름을 창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동학을 위해 열심히 싸웠어요.

한서희

(Johanna Han)

뉴멕시코 한국학교 5학년



김창수가 날이 어두워지자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머리를 짧게 자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수상해서 그 사람이 숨기고 있던 칼을 빼앗아서 죽였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줬어요. 그 사람은 일본장교였어요. 창수는 사형을 받아야 했는데 고종은 창수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실을 알고 사형을 면제했어요. 감옥에서 창수는 탈옥을 결심했어요. 탈옥을 하고 서울로 와서 유인무의 집에 머물렀어요. 유인무는 창수에게 ‘거북 구’라는 이름을 줬어요.

김구 선생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쳐주었어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갈 인물을 길러내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김구 선생님이었다면 집에서 농사짓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신 김구 선생님의 삶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또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김구 선생님은 이름을 ‘아홉 구’로 바꿨어요. 그리고 호를 ‘백범’이라고 지었어요. 백범은 가장친한 계급인 백정과 평범한 사람에게까지도 애국심을 가지게 하자는 뜻에서였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갇힌 감옥은 서대문 형무소였어요. 한국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어요. 내년에 한국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꼭 가보고 싶어요. 역사관에 가서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김구 선생님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인천 형무소로 옮겨졌다가 감형을 받아 풀려났어요. 그 후에 상하이로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을 돕고 애국 청년들을 길러 독립 운동에 앞장섰어요. 1945년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에서 물러나고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어요. 1949년 6월 26일에 안두희가 김구 선생님을 찾아와서 죽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조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일흔 네 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신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싸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싸우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셨어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세 달 동안 책을 끝까지 읽고 독후감을 쓰게 되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저도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신 김구 선생님을 책을 읽은 석 달 동안이 아니라 제 평생에 꼭 기억할 거예요. ■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길

찬송가 164 장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 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증인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 산재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증인의 본분을 다 하지 못 한다 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꼭 지켜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1.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4:2 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나 마귀의 꾀술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며 속임수를 쓰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2. 혼잡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2: 17 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 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 볼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적한 것들이 정말 딱 맞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무리가 우후죽순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어 증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3.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

고린도 전서 2: 4-5 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뛰어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없는 사람의 지혜만을 의지하여 설득하거나 그럴싸한 논리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 시키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인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4. 사사로이 풀이하지 말라.

베드로 후서 1:20-21 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 전서 4: 6 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답장을 보낸 것인데 다른 과를 책망하지 말고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고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6. 억지로 풀지 말라.

베드로 후서 3: 15-16 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교사나 색다른 종교를 세운 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교묘하게 뜯어 마 추어서 새로운 종파를 세우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현세를 살고 있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은 이런 사실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전심을 다 해서 끝까지 분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 2 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증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데서 시작 된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치과 이야기

한국인들이 좋은 치아를 가지는걸 오복중 하나라 생각하시지만 이는 오복중 (수, 부, 강녕, 유호덕, 고종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 수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 하시는 분들이 신체건강도 잘 관리 하시는걸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풍치라 불리는 잇몸병은 한국인들이 겪고있는 전체질환에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지만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단 참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원을 늦추시다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 그러다 고가의 치료비가 요구되는경우도 종종 볼수있었습니다. 올바른 치아 건강상식과 주기적인 치과 방문으로 그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 하기실 바랍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치아관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잇몸 마사지 및 플라그 제거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치실, 치간칫솔 사용을 습관화 하여야 하고,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칫솔질은 필수입니다. 칫솔은 3개월에 한번씩 새것으로 교체하는걸 권장드리며 단 몇초라도 혀를 닦음으로 구강내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하도록 합니다.
2. 6개월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 질환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칫솔모가 닿는 부위까지 어느정도 관리는 가능 하지만 치아 뒷면에 붙어 있거나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치석은 완전히 제거하기 힘듭니다. 최소 6개월에 한번씩의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3. 흡연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흡연을 하면 치아 변색이 생기

윤자정

Los Lunas Smile
NAPA Family Dentistry



며 충치와 치주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며 구취도 심하게 날수있으니 금연을 권해드립니다.

4. 구강질환에 취약하신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샘에서 침이 잘 분비가 되질않아 구강 내 세균 번식이 쉽다는점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우울증약등을 복용하실 경우는 구강 건조증 악화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자는 일반인보다 치주염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고, 수면 부족 환자들은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탓에 좀 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치아 관리로 또 다른 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편집자 주) 윤자정 의사는 로스루나스와 알버커키 두곳에서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로스 루나스

Los Lunas Smiles,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 87031, 505-865-4341

알버커키

NAPA Family Dentistry,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

16쪽<땅 끝까지...>에서 계속

가능성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던 사실이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신 분들에게 건강 상식 하나 더 선사합니다.

인간의 질병 12,420가지 중 70% (8694종류의 병들)가 잇몸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아 관리가 건강관리의 최우선이므로 우리 모두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칫솔질을 하고 칫솔을 그냥 세면대 위에서 말립니다. 어떤 전문가가 쓰고 난 칫솔을 짹짹한 소금물에 담구어 두고 다시 쓸 때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칫솔에 묻은 불순물에 세균이 번식하고 다음 칫솔질할 때 잇몸에 침투하여 잇몸 질환을 발생시키는데, 대부분의 세균은 소금 물 안에서는 죽는다고 합니다. ■

13쪽<누군가의 천사되기>에서 계속

가정 내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서 가정 내 분열이 생기고 해체되는 현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민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Community Reach Out 프로그램 봉사자로도 참여하면서 미국 내 이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L 할머니로부터 드디어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거주지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지만,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차가 없어 병원에 다니는 일, 장보기 등을 항상 누군가에 의지해야 하는 문제 등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할머니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자원봉사자로서 저의 자리를 잘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의 자리를 채우는 그 역시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누렸던 많은 기쁨과 배움을 모두 얻기를 바랍니다. ■

큰 교회(大形教會)



이명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선교사)

요사이 한국의 대표적 대형 교회가 참 시끄럽다. 세계 제일 큰 교회,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 참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들이 공금 유용, 편법 세습, 논문 표절, 배임 등 대형 민, 형사 문제들이 잇달아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니 참 민망스럽다. 한 때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조국 교회가 이러니 때론 잠이 오지 않는다. 물론 잘못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지금 회자되는 사건들은 반교회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집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필자는 사실 큰 교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필자라고 큰 교회 꿈이 없었겠는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교회하다가 은퇴했으니 어떻게 큰 교회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대형 교회 문제가 내 조국 교회의 현주소이고 나라마저 위태위태할 때 국민들의 영적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 모양이니 어디에서 희망을 보고 위로를 찾으랴?

큰 교회에 대한 열망은 목회자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공히 갖는 자연적 현상일지 모른다. 큰 교회를 이룬 목회자는 우선 명예가 올라가고 자금이 풍부해 바라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교회 성장학”이 신학생들의 인기 과목이었고 근대 대형 교회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목사가 되면 어떻게든 교인 숫자를 불리느냐에 몰두했었다.

교인들도 큰 교회를 좋아한다. 우선 큰 교회는 모든 면에 참 편리하다.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리 잡고 넓은 파킹장에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더구나 큰 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성도들의 자긍심을 높여준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누가 누군지 서로 모르니 필자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참 편하다. 서로 모르니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고 몇 주 빠져도 누구도 모른다. 자유롭다는 말이다.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잘 되어 소질이나 품성에 맞는 활동 폭이 넓다. 예배 외에 직업 훈련도 하고 외국어도 공짜로 배우고 에어로빅도 건강 요리 학습도 하고 골프클럽도 있고 해서 마당발을 넓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큰 교회 나가면 사회적 지위 상승이 빠르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큰 교회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면 사회의 유지로 인정받는다. 지위상승이 이보다 효과적인 곳이 있으랴.. 특히 미국 이민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말썽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가들은 사업하기 참 좋다. 정치가도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어찌나 무슨 직책이라도 갖게 되면 자기실현에 효과적인 장소다. 조금만 능력을 발휘해도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서리집사 직책만 가져도 훨씬 더 활동 범위를 넓히고 목적을 이루는데 효과 만점이다.

큰 교회는 교육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조금만 신앙생활 해도 나보다 내 자녀는 예수 잘 믿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램이다. 작은 교회는 좋은 교육이 불가능하다. 시설도 교사도 부족하다. 돈 안 들고 교육하는데 큰 교회가 훨씬 유익하다.

큰 교회는 사회봉사 혹은 사회 참여 기회가 훨씬 많아 지위 상승 뿐 아니라 적게 도와주고 많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심리적 보상이 최고다. 선교 여행 가서 선교지역에 작은 금액만 헌금해도 그렇게 고마워하는 현지인들을 통해 얻는 흐뭇한 감정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심리적 보상이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의 단기 선교 여행이 유행이다. 선교사로서 뼈저리게 아픔을 느낀 솔직한 나의 경험 표현이다. 선교지를 위해서라면 단기 선교는 그만 하는 것이 좋겠다.

큰 교회는 그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그럴만한 자질이 있는 분이다. 특히 설교가 훌륭하다. 죄 책망 없이 용기주고 긍정적 사고 설교는 우리를 매혹시킨다. 영화관에서나 기타 오락장에서 느낄 수 없는 예배 관람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큰 교회일수록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많기 때문에 관람 효과 만점이다. 대 교회일수록 예배당이 상상할 수 없이 넓고 크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들의 예배보다 잘 짜인 순서로 수많은 찬양대의 명곡 찬양을 들으며 예배 관람하는 것은 돈 내고 음악당 가서 얻는 재미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지금쯤 큰 교회 직책을 새긴 명암을 주며 뽐내고 주일 예배 찬양을 선전할지 모른다. 평신도들이 작은 교회에서 사람끼리 부딪치며 시달리는 것보다 큰 교회에 재미 보고 다니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으랴?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수많은 무니만 교인들을 양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게으른 기독교인의 온상이며 강한 세속의 급류에 대항치 못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없는 나약한 기독교인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으니 문제다.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런 나약한 사람들로만 안 된다는 점이다.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필연적 역사적 괴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가 사명을 잃을 때 쏘련의 공산 혁명은 수천만의 인민을 피 흘리게 했고 독일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만의 젊은 피를 제물로 바쳤다. 인류가 이런 역사상 초유의 살상을 경험한

것이 엇그제이다. 한국도 일제 하 신사 참배로 인한 교회의 갈등이 해방 후 좌파 우파 싸움을 막지 못했고 필경은 6.25 민족상잔의 피로 물들게 하더니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 핵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는가?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망하는 사회를 건질 수 있는데 지금 대형 교회의 잘못들이 세상의 어두움을 더 촉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필자도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교회성장을 숫자 성장으로 보는 견해)은 하나님의 뜻이다”는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자 강의를 들었었다. 목회자로 나섰으니 큰 교회를 이루어야 성공한 목사라 믿고 큰 교회 목사님 흉내를 내며 설교를 닦으려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 나는 정말 실패자다. 내 영어 이름이 이다윗인데 성경에 나오는 목동 다윗은 사울 왕이 준 장군복과 대검이 격에 맞을 리 없었다. 다윗은 물맷돌이 대포보다 유용한 무기다. 장군복이 오히려 불편했었다. 그가 익숙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

목회에 철이 들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내게는 성경적 교회관이 나의 물맷돌임을 알았다. 그래서 정도를 걷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가 가진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도 성경적 교회관을 확실히 가진 것이 그토록 고맙고 감사하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성경적 교회에 대한 확신으로 대형 교회론을 반박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결코 대형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현대 대형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적폐가 되기 쉽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대형 교회를 꿈꾸는 장래 목회자들이 이 점을 깊이 통찰했으면 한다.

교회론을 가장 뚜렷하게 가르치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철학의 언어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근본 이유는 모든 만물을 만물답게(충만하게) 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해 첫 창조 계획대로 피조된 만물이 제 구실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 되게 동물을 동물 되게 하시는 일이 구주 예수님의 일이셨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로 가득 차야하고 예수님의 일로 넘쳐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예수) 충만으로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전초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물이 만물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했다. 예수님이 머리고 마디가 연결되듯 개인 개인이 연결되어 살아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체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 몸의 마디가 연결된 것처럼 상통해야 피가 흐르고 신경이 살아있는 생명체이어야 한다. 사랑의 살로 입혀져 주의 피가 흐르는 생명 유기체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현상이다.

교회 성장이 숫자적 증거인가? 어떻게 몸이 성장하는가? 우리 몸은 나면서 270개의 마디를 가지고 태어나 자라면서 206개의 마디로 연결되어 한 장년의 몸을 구성한다. 남, 녀 구분 없이 똑 같다. 몸의 성장이 마디 수의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수는 줄어도 각 마디가 자라 연결되어 성장한다. 특정 마디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 마디가 공히 적당한 분량으로 자란다. 만일 나무처럼 윗부분 머리뼈만 자라면 기형아로 불구자 취급 받는다. 숫자가 많아지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엄청난 몸집을 가진 몸은 유지 불능의 짐승이 된다. 전체 마디가 자기 분량대로 자라야 균형 있는 성인 남자. 여자가 되는 것이다. 206개의 마디가 각자 자라는 것이 성장이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교인 개개인의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마디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 대형화되니 자연 돈이 많이 생기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의 몸이 아니라 짐승의 몸이 된다. 아무리 조직을 잘 해도 비즈니스 몸체로 바뀐다.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름만의 기독교인을 많이 배출하고 짐승의 몸을 통솔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더 힘센 인간적 방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몸의 핏줄은 피를 날라 온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몸의 불순물을 실어내 밖으로 내보낸다. 성인의 핏줄을 잘라 일직선으로 이으면 성인 한사람의 핏줄이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가 먹는 영양을 신체 구석구석에 영양을 나르고 신진대사로 일어나는 오물을 싫어 배설하게 한다. 사랑으로 연결된 마디들이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도록 돕는 기능이 절대 필수다. 이런 조직으로 우리 몸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교인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의 영양분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만 모인 집단이 아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우리 몸은 어느 한 마디의 작은 고통도 바로 머리로 전달한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신경이다. 그래서 손끝에 가시가 들면 열이 나고 온 몸이 쭈시고 피곤하다. 마디의 고통을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 문둥병이다. 성경은 문둥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묘사했다. 병에 걸린 병자는 불쌍하지만 신경 고통 전달이 마비된 사랑 없는 세속 사회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문둥병은 전염성도 강하지만 신경 마비를 알지 못해 병을 키운다. 그래서 중증 환자가 된다. 대형 교회의 잘못은 신자 개개인의 아픔이 다른 마디에 전달이 되지 않는 문둥병자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면 당연히 마디의 아픔이 즉시 전달된다. 그래서 아픔을 서로 나눈다. 그것이 교회다.

사실상 아직도 교회 싸이즈는 신학자들의 숙제다. 나는 교회가 주의 몸이라는 비유에 그 해답이 있다고 확신한다. 성인 인간의 구성 마디가 206개라 보면 200-300명이 가장 알맞은 싸이즈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숫자여야 서로 정을 나누고 피가 흐르고 신경이 잘 연결되어 교회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성경적 교회를 주창하는 미국 장로교회(PCA)는 대부분이 이런 싸이즈의 교회들이 많다. **<21쪽으로 계속>**

파수꾼아, 세월을 아껴야할 때

매주 미국에서는 약 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 24 시간동안 매 한 시간 마다 하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등학생 시절 때 워싱턴 D.C. 근방에서 운전하면서 자주 다니던 길 언덕위에 있던 작은 교회 하나가 이스람 사원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보고 조용히 의아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보기도 드문 광경이었지만 지금은 단지 앞에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건물에 항상 타 종교의 사원으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 더 비밀비재한 일로 변해있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 까지 주류 교단의 미국인 교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국과 미주한인 교회들도 같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근에 다녀온 교단 한인교회들의 총회에서 도 위기의 시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에 비추워 많은 것을 언급하고 논할 수 있겠지만, 짧게 교회 사역의 중요한 목적을 향한 글만을 남길까 합니다.

어떤 술책들을 가지고 장난은 그만 쳐야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교회(eklesia)란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건물또는 어떤 물질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작 전쟁에 나가야 하는 군대가 싸움에 중요한 무기들을 준비하기 보다는 군인들의 편의와 오락시설을 먼저 준비하는데 급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무관한 것들과 사람들의 오락또는 편의를 먼저 생각해 만든 많은 교회들의 프로그램들은 마귀의 간계를 깨어 능히 대적해야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반주지주의를 통한 미신적 신앙이나 안일주의적으로 만족하여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이상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한 환경과 생활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연히 나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0:34).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으른 사람들을 달래가며 하나님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요구될 만큼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진정한 치유와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하기 위해서는 두 손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에게로만 다가가갈 수 있게 복음의 핵심되는 죄에 대한 메시지는 사람이 가차없이 잔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죄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그에 반영된 투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무관하며 안일한 가정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불화처럼 경험될 수 있습니다 (v35). 이렇기에 개으른 성도들을 위해 더 편안한 교회 만들기엔 힘쓰는 것은 그만하고 본질적으로 교회의 기본 (성서적 사역과 제자훈련을 통한 생동감있는 전도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나이드는 교인들의 소원과 함께 교회문

한승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전도사



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이상 이해하며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이해를 한다면 적용은 당연지사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시야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상관없이 교회는 단지 사회적인 모임이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민 교회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외면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 미디어(특히 비디오)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더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다면 선지자들에게 글로 표현된 말보다는 많은 여러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주셨을 것 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때 그림으로 주셨겠지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문자적으로 주시면서 어떤 조각이나 물질 형상을 띄운 이미지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 십계명 제2번). 고대의 우상들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었지만 오늘날의 우상들은 흔하게 접하고 있는 전자화면에 올라오는 온갖 종류의 시청각 콘텐츠입니다. 집에서 가구들 중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할 만큼 화면도 커졌습니다. 두뇌에 관련된 많은 의학적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된 것 같이 많은 시간의 시청각 매체 소비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므로 두뇌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여러 방면의 인지능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참조: 타케우치 히카루 연구 "Impact of Television Viewing on Brain Structures" 참조).

물리적 자극을 봐도 교회에서는 더 이상 참가자들에게 흥미로운 시청각 이미지를 선사해 줄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흥미스럽고 인터랙티브하며 자극적인 것들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고대에는 육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헬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서는 교회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류 문화가 하는 것들을 원숭이처럼 따라 하려고 하면 망되겠습니다. 글로 써서 이 세대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by Michael Han

2018-12-26 ■

“새벽의 은혜와 축복”

간증문 작성을 부탁받고 글을 쓰는 것이 한편으론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올해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많은 분과 나누고자 이 글을 쓰기로 했다.

먼저는 3년 전으로 거슬러가 딸아이가 UNM (뉴멕시코대학) Law School(법과대학)을 간다 결정했다. UNM Law School은 생각보다 입학 절차가 쉽지만은 않았다. 백 삼십 명 정도의 학생만을 입학시키고 낙오하는 학생 없이 졸업을 시키는 학교라 한다. 나와 남편은 새벽기도를 준비했다. 오직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매일 새벽예배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갑자기 나오지 않던 성도가 새벽기도를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신다. 목사님과 사모님. 새벽기도 하시는 성도님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며(Share) 기도했다. 어느 날엔 딸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떨린다며 새벽 예배에 함께 가기도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또한 딸아이는 1년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

딸아이는 첫해에 알버키키 검찰(District Attorney)에서 인턴(Intern)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뉴멕시코주 검찰청(Attorney General)에서 인턴을 했으며 3년째 해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인턴 1학기를 마치고 왔다.



Jenny

그사이 내년 5월 졸업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Honor's Program (장학생 특혜)으로 미 법무부에 직장을 지원

박선희
알버키키연합감리교회
집사



했는데 합격이 된 것이다. 전 미국의 많은 법대 졸업생들이 지원하는 113명의 제한된 숫자 만이 뽑히는 자리에 당당히 합격한 것이다. 처음 우리 가족은 서류심사에 합격했다 했을 때만 해도 다음 단계인 인터뷰만 보더라도 가문의 영광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와 남편은 몇 년 전 새벽기도로 준비한 것처럼 또 새벽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후의 담임 목사님은 여전히 놀라 하셨다. ㅎㅎ 나는 다시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며(Share) 남편과 돌아가며 기도로 준비했다. 기다리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셨다. 딸아이는 5월에 졸업하고 7월에 사법시험을 본 뒤 9월에 텍사스 댈러스(Dallas)에 있는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발령받아 가게 됐다. 앞으로 법정(Court)에서 판사(Judge)와 함께 아기(Baby) 검사로 일할 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할 뿐이다. 나는 나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절실히 느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내 가족을 늘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셨다.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나 나의 주님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

19쪽 <큰교회>에서 계속

조금만 커지면 교회를 분리하며 자녀 교회를 낳는다. 교회 개척을 할 때 이런 신 교회 개척 플랜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올바른 자녀교회 생산 계획이 있어야 총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이제 교회 소형화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대형 교회는 나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사랑이 숫자보다 우선해야 하고 각 마디 성장이 마디 수 증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대형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영화 한편 보는 즐거움만 누리고 만다면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다. 예배 관람하고 즐기다 돌아와 세상을 즐기다가 또 주일 복 받으러 교회 출석 현금 조금 내고 쇼 즐기고 가는 이름만의 신자라면 대형 교회가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내 피로 구원한 성도라면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형 교회 풍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현재의 부요함을 만족하고 살기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자청해야 비로소 신앙의 효과가 보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형 교회 성향의

목사를 유능한 목사라고 추겨 세우는 성도도 깊이 반성해야 하고. 큰 교회를 목회 성공이라 여기고 무슨 방법이든지 숫자 불리기에 매진하는 성직자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목사 후보자를 양산하는 신학교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런 교회 다니며 교회 비리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대항하는 성도들도 돌아서야 한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한인 숫자가 적은 알버키키 한인 교회들은 모두 작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오히려 성경적 교회일 수 있는 기회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초대 교회는 House Church였다. 가족처럼 작았다. 물론 200마디가 성인 한 사람의 몸이니 200명 교회면 더 좋겠지만 그리 못 되어도 사랑은 가능하다. 지금 핵가족은 3명이면 정족수다. 비록 3명의 교회라도 사랑 끈 두께가 두툼하다면 성공한 목회다. 작은 교회 목사라고 기죽지 말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아니 새해에는 한국 교회 모두가 새로운 작은 교회 운동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작은 교회 생각이나 하는 필자는 참 바보 목사요 영원한 목회 실패자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다. ■

주일 예배 기도문

이철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권사



창조주의 근본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성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여 잘못된 행실이나 언행을 바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로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곳곳이 바로 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김기천 목사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기억하여주시고 특별히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
쪼개는 예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개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차고 넘치는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교회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앞날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모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배로서 낙오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육신이 다시 태어날 순 없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본 받고 믿음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많은
아이들이 믿음의 보살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아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교육 목사님을 초청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을 거란 믿음을 주시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성가대의 찬양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영혼,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 난 영혼들은
치료를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12쪽 <함께하는 자원봉사>에서 계속

필요는 없다. 사람 어울려 사는 동네는 나도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내가 필요한 더불어 공존하는 지구촌이 아닐까.
혹자가 어느 유명한 산악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저 위험한
산에 오르려 하냐고 했더니, 그 산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간단하지만 참 철학적인 답이 아닐수 없다.
굳이 타인을 향한 원대한 뜻이나 포부가 없어도, 빌게이츠처럼
아프리카 어린이를 살릴수 있는 물질이 없어도, 마더 테레사 같은
희생적 헌신이 없다 한들 어떠한가.
자신에게 허락된 물질이 있으면 그것으로, 어떤이는 시간과

노동으로 또는 타고난 재능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더불어
나눌수 있는것 이다.

심지어는 일상 가운데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들--
뒤에 오는사람을 위해 문을 잠시 잡아 준다던가, 주차장에서
파킹 장소를 잊어 버린 노인을 위해 같이 차를 찾아 준다던가,
외로운 이에게 안부 전화나 방문하는 일들을 시작으로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꾸준히 해 내는 일들이야 말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올라가야 할 산이 아닌가 한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일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모임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관련사진과 새로운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
 voiceofnm/**



**광야의 소리 지난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voiceofnm.kumcabq.com**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알버커키 Albuquerque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건축/페인트 Painting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공인회계사 CPA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자동차정비 Auto Repair
교회 Church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ABQ(505-883-3618)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주택용자 Loan Officer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ABQ (505-345-0960)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사진관 Photo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세탁소 Dry Cleaners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중재서비스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컴퓨터 서비스
단요가 Dahn Yoga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리커스토어 Liquo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Salon 47(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SH Consulting(이성희) 505-933-9004 Remote/Onsite Computer Support.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치과 Dental Clinic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츨: Los Alamos (505-
662-9681)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9년 1/2월호
발행일 : 2019.1.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에 비즈니스 광고내시길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